

〈제 6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줄·함·을

즐거워 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는 자들로 함께 올라 (롬12:15)

97교회 표어

“예비하라.”
(눅 3:4)

발행 : 출판부

(본 선교지는 두달마다 발행됩니다)

1997년5월

빌라도 총독은, 심지기형에 처해 달라는 유대인들이 고발한 예수님을 심판에 보냈지만, 그에게서 죽임당한 죄를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 다. 마침 그 날 저녁부터는 유월절이 시작되게 되어 있었으므로, 유월절이만 죄수 한명을 특사로 풀어 줄 수 있는 권리에 따라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당한 예수님을 풀어 주려 했지만 유대인들은 강도 바리새의 특사를 소리높여 요구했습니다.

1차적으로 자신의 뜻이 무신한 빌라도는 일단 예수님을 군병들속에 내어 주었고,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무자비한 채찍질을 가한 뒤에, 왕을 위하여 머리에 왕관 대신 가시관을 그리고 몸에 는 관례에 따라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한 유월절을 장식하기 위하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재철 목사

기어다” 하고 놀리면서 손바닥으로 마구 구타하기까지 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다시 유대인 앞으로 끌고와 본분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다.” (4b)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이 정도로 혼을 내어 주었으니 이제 풀어 주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말이 끝나자 마자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라고 합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시위였던 것입니다. 기분이 언짢아진 빌라도는 6월 하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자주 십자가, 십자가 하는데 어디 할테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관례를 내리지 않는한, 그런일은 절대대로 있을 수 없을 것이지만 의미인고. 그러자 유대인들이‘우리에게도 받아 있다.고 소리지르 응수했습니다. 로마인 너희들에게만 받아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인 우리에게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려고 요구할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을,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여 마땅한 이유를,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신데서 찾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요, 개의 새끼는 개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인간이 하나님일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초자연적 적이없는 빈민 출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일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믿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자처하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수 없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믿었던대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유대인들의 확신과는 달리 그 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까. 그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박히기 직이없는 빈민 출신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 없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믿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자처하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수 없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믿었던대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유대인들의 확신과는 달리 그 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박히기 직이없는 빈민 출신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 없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믿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자처하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천년전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부활치 아니하셨다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이처럼 거듭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각자 각자를 향한,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시며 자상하신지 각자 묵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97.3.30 부활주일 낮예배 설교중 일부
요한복음18:38-19:17)

②

기 고

손자가 태어나 온 가족이 기뻐하던 중 병쳐 들을 맞아 온갖 재물이 날마다 함박웃음이 반박했다. 손자 장부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다. 이제 몇해만 지나면 12세기가 오는데 그때 우리 손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순간 아이들이 재료용 주역으로 일할 무대는 어떤 세계일까요.

새 시대는 정보와 사회이다. 첫째로 정치산업에 위한 자본

도전하는 기회를 주는 일부터 시작하면 여러분야에서 작은 천재들이 기성천재의 옆에 골똘하고 고민하고 밤을 새우는 중후대로 큰 천재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우리민족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되지만, 다만 도전할 기회를 주지 않아서 천재들을 죽이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 출신 규조라던 미국의 빌·게이츠 같은 사람 몇사람만 있으면 딱히 살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손자의 미소에 내일이

이제 21세기 진입을 위해 준비를 해야 할 때이다. 갈길과 발 길을 분명히 예비하는 것이 의무요, 책임이다. 첨단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천재와 인간을 신뢰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이다. 이런일은 단순한 현재의 연속선상에서 생각해서 안된다. 코베르니쿠스적 사고의 전환이 요구된다. 지금 하는 것, 잊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시작해야 할 것이다. 성경속에 해답이 있다. 성경 말씀은 현실적이면서 가장 혁신적인 대안이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경건한 삶의 훈련부터 시작하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하라하시고 지금 감한자를 부르고자 할 내일의 도우심을 믿자. 말씀을 의지하고 강하고 감동하자.

손자 장부의 더 큰 웃음을 바라보다.

이수홍 장로

제일교로 천재 손정의 사장은 한민족의 독창성이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며 창세개명을 거절한 것은 유한한 애기다. 21세기 영웅은 빌·게이츠, 손정의 같은 사람들이다.

다들오면 인간을 신뢰하는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명제는 정보와 사회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것 이상의 중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정보통신이란 본질상 인간을 신뢰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원고를 기다립니다

출판부에서는 교회소식자인 할줄함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성도들에게 알리고 싶은 글,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글, 각 교회 부서에서 알리고 싶은 기사를 기다립니다.

교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연락처는 출판부 조원호집사(전화 3473-6256, FAX 581-2281) 또는 전경우집사(722-4714)로 연락 주십시오.

기 고

③

1988년이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도 없고, 절망 가운데서 신학교를 포기하고 다시 세상 길로 접어들어야 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 주님의 교회가 사를 용산구 한남동 지하 여성 청년교육원을 빌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50여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고, 개척 교회로서 교회적임이 필요했음 때문에 저는 직전으로 예배준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은혜 가운데 날로 새 식구가 늘어나고 출애와 가고 있는데, 주일 예배와는 여성 청년 교육원 자리에서의 집회가 어려워 강남 YMCA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의 집은 경기도 신창이었고 주님의 교회까지 오는 데는 버스를 세번 갈아타고 와야 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신앙으로 슬며시 교만이 싹트기 시작, 불만이 생기기 시작 다른 교회로 옮기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재철 목사님은 전도사님이었음으로, 어려운 처지에서 자는 사해비 나 나 누어 쓰지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직을 마련하여 주신 은혜를 헌 신막 버리듯 던지고 말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재철 전도사님의 배려로 주님의 교회에서 제자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신학교 등록금을 전액 부담하여 주셔서, 현재 주님의 종로로 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비록 교단은 다르지만 주님의 교회에서 배운한 목사님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주신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교명수 목사

〈남양주 요하네스버그 선교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중국 선교를 한당시, 89년 부터 90년 까지 흑룡강성을 드나들며 하승세를 보냈고, 91년 부터는 필리핀에서 ASIA PACIFIC CHRISTIAN MISSION, ASST.를 조직, 필리핀의 ST. LUKE HOSPITAL의 중국계 의사 12명과 함께 의료 선교를 하였고 주로 올랐던 곳은 피나투보 화산 폭발 피해자들을 돌보아 주었다.

그후 귀국하여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고 난후 8년 전에 주님의 교회에서 만났던 지금의 예수 세계 선교교이자장남인 ESTHER 김전도사님과 만나게 되었고 이후의 도움과 7개월간의 기도로 SOUTH AFRICA 선교사 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빈부의 차가 심하며, 어덜가나 치안이 부재임으로 일몰후에는 강력 사건이 많이 일어났다. 이곳은 7개 종족으로 이루어져 예배도 같은 종족끼리 언어가 안통하여 저희들끼리 통역을 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가책도 두종류, 성경책도 3가지 가지고 다니며 예배시간도 3시간 이상 보름 걸린답니다. 그래도 이곳 원주민은 아무 불평도 없고, 아주 즐거워하며 교회에 올라는 제일 좋은 웃음 잃고 옵니다. 이제는 교육의 자유가 허락되어 젊은 층들은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나 중년층 이상은 말은 하려도 쓰고 읽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로 원주민 언어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의 간곡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신 앙 고 백

④

저희의 사역지는 동 말레이지아 아 사라와 저의 라자강 유역의 주상류 지역으로 명칭인 구경을 먹고 일주일 동안 사역하였습니 다. 이 지역은 열대우림으로 거의 적도에 가까와 끝없이 절경이 펼쳐있고 그 사이를 라자강이 적출처럼 흐르며 그 주위에 이반족속 약 300이 넘는 한 부족이 자신들의 언어와 삶의 방식을 고집하며 문명 도 통치받지 않은 이반부 미진 도 풍족으로 살고 있었습니 다.

저희의 사역지는 동 말레이지아 아 사라와 저의 라자강 유역의 주상류 지역으로 명칭인 구경을 먹고 일주일 동안 사역하였습니 다. 이 지역은 열대우림으로 거의 적도에 가까와 끝없이 절경이 펼쳐있고 그 사이를 라자강이 적출처럼 흐르며 그 주위에 이반족속 약 300이 넘는 한 부족이 자신들의 언어와 삶의 방식을 고집하며 문명 도 통치받지 않은 이반부 미진 도 풍족으로 살고 있었습니 다.

말레이지아 이반족 단기 선교를 다녀서

손영익 집사
(매년과 원장)

과거에는 Head-Hunting의 호전성으로 유명했던지만 지금은 온순하며 복음에 호의적이나 정령 숭배에 젖어 있다고 한다.

새벽에는 Q.T로 하루를 열고, 오전과 오후에는 진로 사역과 어린이 사역, 밤에는 선교 사역을 했는데 Pastor William (SIB교단의 이 지역 책임자, SIB교단은 이반부 자생교단으로 다른 지역에 본부가 있으나 이 지역에 관심을 보임)과 Joseph Jabu(이반족으로 가나원에서 영교사로 일하는 신실한 형제임), 이 아브라함 선교사 (대학 4년 선배인 치과의사, 이

지역을 포함한 10/10 Window 지역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선교기로 헌신하신 분), 김 라자강 선교사(치과 의사이자 이 지역에서 4-5년간 헌신하신 분)를 이 큰 도움을 주셨습니 다. 저희가 방문한 3군데의 통 하우스 중 두마 우갑에서는 주님께서 저희의 손을 통해 우리에게 사도 감회 있던 형제를 주원시키시고 그의 입에서 “Puji Tuhan Yesus!” (주 예수님 찬양하라!) 라는 찬양의 강령을 들으셨습니 다. 저희를 모시고 감사를 나누고 일찍부터 만나

어느 정도인지 상상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적게는 수천명, 많게는 만명이 넘는 육중한 자종의 건물들이 물의 끝, 즉 북쪽에 의해 변형되기도 하며 신한 자를 유방하기도 한다.

양재 현상에서는 산출된 부력 약 8,500톤 보다 건물자중을 약 9,000톤으로 설계되어 기초 콘크리트 및 지하 5층 음력을 다 건설하는 순조로움을 보였는데 문제가 발생되었다. 그것은 건물을 짓는 도중에 건물자중이 부력보다 적은 것이었다. 그래서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가 상 (5면)에 계속)

기 고

⑤

품위있는 죽음

산사람들 누구든 죽음에 대한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 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고, 나와 영혼을 구원하신의 손에 맡기나이다.라고 감리없이 말하면서 이 세상을 마감할 수 있는가? 대다수는 미지와 소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죽음이란 지상의 삶에서 영원한 삶으로의 이행이라는 확신을 품고있지 않아서 막상 죽음이 문앞까지 다가왔을 때 그대로 행동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시중에 화제가 되고 있는 베스시슬리인 김정현씨의 소설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자기가 이야기하는 관점은 아니지만 질병, 죽음, 안락사 등의 세상 판사를 다루었다. 주인공은 제정장 딸자로 고향과 소외감속에서 자기 연인에 빠지기도 하고 심각한 우울증에도 보인다. 결국은 남은 가족에 대한 마지막 봉사 의 의미로 죽음을 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죽음은 무의미하다 자기 정체성과 생명의 실체를 바로 보지 못한 잘못을 범하고 있고, 그의 가족과 가까운 주위 사람들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사치 이기적이다.

반면 시카고 대주교 조세프 버나디 추기경은 자신이 제정장의 재발로 죽음을 예감했을 때 병에 대해 공개했는데 그 이유

를“우리 자신속으로 움츠러 들어 나 남들과 멀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의 솔직한 정직성은 충격적이었다. 그러자부터 사제가 되었고 이로서 은 50년 동안 미국 가톨릭계의 지도자였던 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저를 진리를 알았을 때 초조, 불안, 참담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그는 저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죽음이라는 바를 삶에 온전한 의미를 느끼게 해주시는 법을 깨닫고 있다고. “나는 죽

최 상웅 집사
(고려대 의대교수)

어가는 품으로 생명이라는 선물 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올다. 병이 재발해 죽을 직전 3개월은 주님과 바른관계로 다녔다. 내가 다짐해 그가 소홀히 했을지도 모를 이웃들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소중한 시간이었다하고 그 전까지 자기는 단순히 직업적으로 성서로 사 람이었었다고 모른다고 고백했다. 그는 언어라는 자신의 질병을 통해 매일 새벽 기도로 주님

과 만나는 시간을 따로 마련했고 그는“주님, 제가 이 아침 기도시간중 얼마간은 공상과 세상의 공리에 보낸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리고 그런 공상을 없앨 수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이시간을 다른 누구에게도 바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시간이 저와 믿음의 충혼인 그에게로 바쳐졌지만, 나는 그 누구도 이 시간을 차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라고 기도했다.

훌륭한 죽음을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이란 훌륭한 인생을 사는 것임을 깨닫는다는 결과는 결코, 삶은 복을 받는 삶을 항상 예비하는 시간이다. 속세를 다리고 통과하는 학생의 별들을 기가버를 것이다. 같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안에 거하면 서 소망을 가지라.

신앙영 집사
한국의 수바이저 정기 력사

아름다운 사람
최은은 집사 / 문화문고 / 값 6,500원

의심앙양한 믿음의 삶을 위하여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윌슨 W 위버스비 저 / 나침반값 6,500원

탐미 해담도 루시나의 현대인에게도 하나님님 필요인가?
해담도 루시나 저 / 흥성사 값 6,500원

딸과 며느리에게 쓰는 어머니 편지
나의 남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딘다 힐보우 저 / 흥성사 값 5,000원

청 년 부

⑥

짧은 6개월의 기간이었으나 마 미국에서의 생활은 우물 안 개구리처럼 한국밖에 모르던 나만의 움직임을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다. 미국이란 곳은 전적으로 너무나 넓고 한산해서 어느 이름 또는 휴양지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됐지만, 미국의 대학은 그렇지 않았다. 미국의 대학은 명실상부하게 국제적인 곳이었다. 나는 그 곳에서 정말 정신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 미국 현지인을 비롯해서 이탈리아인, 아랍인, 남미인, 중국인, 홍콩인, 태국인, 티베트인, 일본인 그리고 한국인들을 만났고, 그들은 모두 저마다 사랑스럽고 정다운, 그러면서도 남모를 사연들을 가진 인간들이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나를 비롯한 한국인들 역시

로는 찾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당장 내 자신이 미국 대형아 트에서 느낀 정도였던 중국대, 전신한 미국대, 고도 기공의 일본대 시에서 한국에는 좀처럼 찾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우주의 가장 생활하는 사람은 통해서도 정제년이 피부로 느껴졌다는 소리를 수시로 들곤 한다. 손조기정이라는 사람은 한문과 논문을 발을 지니는 것이다. 오랜 시문에는 율해 초 실업률에 0.2% 급등했다는 소리가 났다. 한국 경제 대로 침몰할 것인가 하는 말이 어젠 그제 하는 소리가 아니게 되었다. 실상가상으로 이만해야 복원이 무너지고, 동포들이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다.

아직 학생 신분인 나로서는 이런 어려움을 주로 주위의 힘줄에 하는 친구나 선배들을 통해 해결하곤 한다. 한 마디로 그들은 전 몸과 현실의 차가 너무 크다. 특히 기공의 일수록 오히려 더 그러하다. 저마다 가슴에 비전

을 품고 사는 그들이지만 현실 그들에게 어떤 비전을 크게 붙여 줄지는 장이 되지는 커녕 장에 기별 일지라 하나를 허락하지 않는다. 과거 세대와는 그 세대대로의 시선이 있었지만, 지금 젊은 세대에게 하나님 이 허락하신 것을 먼저 결코 가만히 두지 않는다. 우리는 몸을 매단면 천구들과 한개의 한 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 하지만 나 는, 이런 시련 가운데 고민하고 애쓰는 청년들의 모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러한 힘에 겨운 시련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연단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을 논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코 비관적이지 않다. 시련이 강한 곳에 하나님 이 바라시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강하고 헌신적인 일꾼들이 생겨날 것을 믿고 기대하

저희 청년들이 바로 한국의 희망입니다

이재현
(청년 1부)

시 그들과 마찬가지로, 나만의 개성을 가졌지만 역시 사랑스럽고 정다운 인간임을 지니, 하나님의 지신 마 인간들이라는 것이다. 나는 거기서 나를 비롯한 한국인들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한국인들은 아닌 게 아니라 결점도 가졌지만, 내가 보기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 보다 돋보이는 점이 더 많은 것 같았다. 낯선 것에 적응을 하려 하기보다 원시적 배타성이 되어 자기들답아 버리는 것이 결점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저국적이든 배후는 자리에 서서 무뎌지고 부지런하고 자기 삶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고 살라는 점이 큰 강점이었다. 팔은 안으로 굴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한계점을 중에서 가장 결점은 아니라고 자평은 가장 크게 보이는 이들이 역시 기독교 청년들이었다. 행령이 여러 지 않는데도 노력해서 미국에 온 그들은 제 정령에 대해 고민

만 신경을 끈두세우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 무뎌져 있는 우리 영혼의 귀를 섬세하게 더듬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놓치지 않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비록 현대의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아마도 영혼의 시간을 갖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루종일 정한 시간을 정해 하나님앞에 조용히 앉아 그분과 대화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 주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 이 경건의 비밀을 깨달은 자만이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

내 수천 만 앞장서는 CORAM DEO.라는 말이 소중하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다. 아첨 하나와 영광을 사치하기 전에 오 늘도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세 회회와 사람들과 성직을 맺고 배반하고 기도한다. 우리의 매 회회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가는데 더 큰 진보가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들고 당신을 아는 일에 우선하게 하소서! “영생은 곧 율법적인 삶 속으로 들어가는 보배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17:3)

강석영 전도사

에 그분 앞에 시간을 드리고 싶었다는 훈련을 때리고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참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다. 우리의 친구모 이자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에 대해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성경은 “말하지 말라”라는 것을 “듣라”고 금지하지만, 우리의 하나님 복되다는 세상편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는 아래와 같다. 아직 청력되지 못한 교우는 이 성도 여러분의 연명별로 선교 등 록해서서 알찬 봉사의 기회를 회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지시요.

출생 연도	남성교회	회장 및 연락처	여성교회	회장 및 연락처
1946년 이전	제 1 남	황기연 집사 (☎553-4032)	제 1 여	장순현 집사 (☎545-9468)
1947 ~ 1951년	제 2 남	하승락 집사 (☎549-0362)	제 2 여	김자성 집사 (☎567-2598)
1952 ~ 1956년	제 3 남	조성득 집사 (☎343-86-9464)	제 3 여	송경혜 집사 (☎406-9354)
1957 ~ 1961년	제 4 남	윤영선 집사 (☎332-2235)	제 4 여	최재경 집사 (☎444-3045)
1962 ~ 1966년	제 5 남	황정연 집사 (☎495-0705)	제 5 여	안종실 집사 (☎331-296-3678)

교회 소식

⑦

학습·세례 입교식 거행

지난 3월31일 저녁 8시에 YMCA대강당에서 학습·세례·입교식이 이채롭고 담담의 집도로 거행됐다.

이날 학습 44명, 세례 40명, 입교 13명이 주님의 품안에서 살기로 약속치 사함했다.

신교회를 사하는 데를 사는 삶의 나눔을 실천하기 위하여 서로 물건을 돌려 쓰기로 하는 돌핀 잔치를 4월8일 YMCA 교육관 에서 개최하였다.

이 잔치에서 얻은 수익금 은 교회건축헌금으로 사용된다.

헤브론회 정기총회

헤브론회는 교우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매달 한번씩 푸른 초원을 끌포를 치며 친교하는 모임이다.

지난 2년간 회장으로 수고한 문창복 집사와 회장으로 조인호 집사가 새 회장으로, 총무 에는 이종성 집사, 경기장사에는 서기촌 집사가 각각 선출되었다.

가임읍 회합하는 교우는 집행 부에 연락하면 된다. (전화 ☎52-3473-6256, 이종성 총무 ☎52-7774, 서기촌 간사 ☎3473-0091)

자율 품역천리 상성치A 103명 105회 (☎0331-261-9710)

▲남기방·최영진 집사: 이사 (☎572-4620)

(부들)

▲조민집 집사: 모친상

▲김종식·유영희 집사: 모친상 (울산)

▲손희숙·양유미 성도: 특납

▲오진석·김희정B 성도: 특녀

▲오정숙·김희정 성도: 특녀 (결혼)

▲김영민 장로·한규연 집사: 수

▲김영민 장로·한규연 집사: 수

▲박영한 집사: 이태원으로 (☎795-1490)

▲서준규·홍기연 집사: 목동신시 가자A 224명 1502회 (☎224-1502)

▲양태복 집사·김영자 권사: 구의3동 연수A 201명 904회 (☎453-3222)

▲박사민·신성숙 성도: ☎544-3740

▲김우민 장로·한규연 집사: 수

○영세 교회 김종수 회원로 시가 설교 하고 있다.

▲4면에서 계속)

의한 끝에 공사중에는 지하수 의한 끝에서 유래해서 배수 하고 건물에 완성되면 지하수 유입을 차단하는 구조적인 방법을 택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속에서 항상 나를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하는 감사 기도를 드렸다. 부력은 나에게 있어 세상적이고 죄의 뿌리들이며,

완성된 건물 자들은 하나님의 부귀로 말미암은 무게였고 그 것은 호흡이 있는 동안 말미암은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자질을 나타내, 말미암은 무게로 자질을 능력으로 세속적인 것을 불러 버릴 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으며 그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한 삶의 기본 자세임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었다. 아멘

부활 축하 찬양과 감사의 밤

지난 성대대 주판으로 YMCA 대강당에서 지난 3월30일 주일 저녁 7시에 영세교회 원로목사 김종수목사를 모시고 특별찬송 및 찬양예배가 성대히 열렸다.

특히 이날은 몰래복 무용단 (국내 최초의 성공무용단)의 특별 공연으로 주님 부활의 참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신앙 사경회 개최

남양주 박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지난 3월31일부터 4월2일까지 신앙 사경회가 열렸다.

첫째 날은 “생각하는 믿음” 둘째 날은 “실천하는 믿음” 셋째 날은 “실천하는 믿음”이

▲(이시)

▲(이시)

연락 : 이종철 집사 (☎11-1497)

토를집사 개최

부활의 새봄을 맞아 연합 여

특별 기 고

⑧

듣는 기도

새벽 기도회를 마칠 때마다 개인적으로 갖는 안타까움이 한 가지 있다.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종료 소동과 함께 바쁘게 퇴장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로서 성섭 해 하시겠다는 믿음이 풀 때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한다. 대화는 언제나 일방적이 아닌 TWO-WAY COMMUNICATION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과 아이에서도 좋은 대화가 되려면, 대 얘기를 할과 동시에 상대방의 말도 경청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하물며 하나님과 대화인 기도에 있어서 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내가 하나님에 바치는 기도 제복들과 간구들만 잔뜩 늘어 놓은 다음에 그분의 대답은 들을 사이도 없 이, 아니 하나님께서 피라노 이 자리에 있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리를 뒀고 있어선다. 내가 그것대로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대답할 필요가 아닐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듣는 기도’인데 있다. 내가 하나님께 5분은 기도했다면 최소한 5분 이상은 그분께 나에게 말 을할 시간을 드리고 겸손하 도 겸손히 그분의 음성을 듣는

만 신경을 끈두세우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 무뎌져 있는 우리 영혼의 귀를 섬세하게 더듬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놓치지 않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비록 현대의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아마도 영혼의 시간을 갖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루종일 정한 시간을 정해 하나님앞에 조용히 앉아 그분과 대화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 주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 이 경건의 비밀을 깨달은 자만이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

내 수천 만 앞장서는 CORAM DEO.라는 말이 소중하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다. 아첨 하나와 영광을 사치하기 전에 오 늘도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세 회회와 사람들과 성직을 맺고 배반하고 기도한다. 우리의 매 회회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가는데 더 큰 진보가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들고 당신을 아는 일에 우선하게 하소서! “영생은 곧 율법적인 삶 속으로 들어가는 보배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17:3)

강석영 전도사

에 그분 앞에 시간을 드리고 싶었다는 훈련을 때리고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참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다. 우리의 친구모 이자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에 대해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성경은 “말하지 말라”라는 것을 “듣라”고 금지하지만, 우리의 하나님 복되다는 세상편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는 아래와 같다. 아직 청력되지 못한 교우는 이 성도 여러분의 연명별로 선교 등 록해서서 알찬 봉사의 기회를 회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지시요.

출생 연도	남성교회	회장 및 연락처	여성교회	회장 및 연락처
1946년 이전	제 1 남	황기연 집사 (☎553-4032)	제 1 여	장순현 집사 (☎545-9468)
1947 ~ 1951년	제 2 남	하승락 집사 (☎549-0362)	제 2 여	김자성 집사 (☎567-2598)
1952 ~ 1956년	제 3 남	조성득 집사 (☎343-86-9464)	제 3 여	송경혜 집사 (☎406-9354)
1957 ~ 1961년	제 4 남	윤영선 집사 (☎332-2235)	제 4 여	최재경 집사 (☎444-3045)
1962 ~ 1966년	제 5 남	황정연 집사 (☎495-0705)	제 5 여	안종실 집사 (☎331-296-3678)